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지역 맥락 분석*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Context and Economic Feasibility of Public Library Construction: Evidence from Busan Metropolitan City

장 덕 현 (DurkHyun Chang)**
구 본 진 (BonJin Koo)***

목 차

- | | |
|-------------------|---------------------------|
| 1. 서론 | 4. 지역 간 차이 및 WTP 영향 요인 분석 |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5. 결론 |
| 3. 사례 지역의 현황 및 특성 |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지표인 비용편익비율(B/C)의 편차를 지역 맥락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 수행된 두 건의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WTP)을 중심으로 지역 간 차이와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 간 평균 WT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효과 크기는 작아 지역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지표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반면 이용 행태, 접근성, 도서관 경험 및 도서관 필요성 인식 등 여러 변수에서 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변수는 WTP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상관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WTP는 특정한 하나의 요인보다는 지역 맥락에 따른 복합적 판단의 결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지표가 지역 맥락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향후 공공도서관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적 지표 외 정책적 및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regional context shapes variations in the benefit-cost (B/C) ratio, a key indicator used in public library construction feasibility assessments. The analysis focuses on two public library development projects in Busan, South Korea. Using user survey data, the study analyzed willingness to pay (WTP) and related factors through chi-square tests, independent-samples t-tests, and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mean WTP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districts, the effect size was small, suggesting that regional classification alone does not sufficiently account for variations in economic feasibility outcomes. In contrast,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library usage behavior, perceived accessibility, service satisfaction, and perceived necessity. Several of these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TP, although the correlations were modest.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economic feasibility indicators are sensitive to regional contextual factors and highlight the need for feasibility evaluations to incorporate broader social and contextual considerations beyond economic metrics alone.

키워드: 공공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경제적 타당성, 비용편익비율, 지불의사금액, 지역 맥락, 타당성 평가
Public Library, Children's English Library, Economic Feasibility, Benefit-Cost Ratio, Willingness to Pay, Regional Context, Feasibility Study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 ISNI 0000 0004 6477 1402)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jkoo@pusan.ac.kr / ISNI 0000 0005 0269 148X)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35-51,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03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서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을 신규 건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이는 지역 간 공공도서관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서관 핵심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무분별한 도서관 건립을 방지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 및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이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및 교육청은 건립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도서관 건립·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건립·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건립의 필요성, 입지의 적절성,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건축 규모, 경제성 분석 및 예산의 타당성 평가, 추진 기간의 타당성 평가, 대상지 환경 및 건축계획 분석

등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이 중 경제성 분석 및 예산의 타당성 평가는 크게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비용편익 비율(B/C ratio),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해가 쉽고, 사업 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세 가지 기법을 모두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건립·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도 대부분 이 세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대상, 특화 주제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B/C 값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2024년과 2025년에 부산 지역 2개 구에서 건립

<표 1>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주요 내용

구분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주요 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비용 추정 - 편익 추정 - 비용효과 분석 - 민감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비용 추정 - 수입 추정 - 운영수지 분석 - 민감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부합성 -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 기타

예정인 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 기본계획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개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어린이)과 특화 주제(영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B/C 값은 Y구가 1.60, G구가 1.04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건립이 지역의 특성,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 교육 환경, 지역 생활 특성 등 지역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도서관과 같은 비경제제이자 공공재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특히 B/C 분석 결과의 편차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 지역에서 수행된 2건의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유사한 조건의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경제성 지표가 도출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평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그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는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연구들로, 비용편익 비율(B/C ratio),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를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윤대식 외(2003), 강희경 외(2014a; 2014b), 오용식 외(2016), 강

희경과 이용재(2017), 장덕현과 구본진(2018), 노영희 외(2023), 박주현 외(2024)의 연구로, 이들 연구는 단일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타당성 조사의 접근 방법을 검토하거나 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접근 방법을 비교하고, 각 타당성 접근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이상복(2004)의 연구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서관 건립 필요성 및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을 이용자 인식 조사를 통해 분석한 강은영(2020)의 연구가 그 예이다.

또한 타당성 평가로 도출되는 경제성 지표가 조사 설계 및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도 있다. 표순희(2012)는 타당성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CVM 설문에서 지불수단의 차이에 따른 WTP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CVM 설문 시 설정하는 지불수단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고, 심원식(2010)은 경제성 평가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비용편익비율 수치는 측정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는 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을 측정하거나 평가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경제성 지표가 어떠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도출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타당성 분석의 측

정 방법이나 조사 설계 방식에 따라 경제성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도서관 건립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사한 서비스 대상과 특화 주제를 가진 두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경제성 지표의 차이를 지역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24년과 2025년에 부산 지역에서 수행된 2건의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두 사례는 모두 서비스 대상이 '어린이'이며, 특화 주제가 '영어'로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비용편익 비율(B/C)이 Y구는 1.60, G구는 1.04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지역을 비교 사례로 설정하여, 비슷한 시기, 유사한 조건의 도서관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지표가 상이하게 도출된 원인을 지역 맥락 차

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각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행된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이다. 전체 응답자는 Y구가 524명, G구가 1,071명으로 전체 1,595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WTP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지불의사가 0원인 설문 중 저항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 활용한 유효 설문은 1,441건이다(〈표 2〉 참조).

분석을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은 응답자 일반 사항, 도서관 이용 빈도, 접근성, 만족도 등 이용 행태에 관한 문항과 응답자가 느끼는 도서관 충분 정도 및 필요성 등 인식 및 수요에 관한 문항, 지불의사 금액이며, Y구와 G구의 타당성 조사 시 활용했던 각 설문지에서 공통된 문항만을 활용하였다(〈표 3〉 참조).

2.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WT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간 WTP, 이용 행태 및 인식 변수 간 차이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 간 WTP, 이용 행태 및 인식 변수 간 차이 분석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관계 분석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SPSS 3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설문 수

구분	전체 응답자	저항응답 수(%)	분석 대상 설문 수(%)
Y구	524	61(11.6)	463(88.4)
G구	1,071	93(8.7)	978(92.3)
계	1,595	154(9.7)	1,441(90.3)

〈표 3〉 분석 대상 설문 문항

구분	세부 내용	문항 수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가족 구성 형태, 가계 월평균 수입	4
도서관 이용 행태	도서관 이용 빈도, 주 이용 교통수단, 방문 시 소요 시간, 도서관과의 거리, 도서관 서비스(자료, 공간 및 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 여부, 도서관 서비스(자료, 공간 및 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	10
도서관 수요 및 인식	도서관 충분 정도, 도서관 건립 필요성, 건립 시 이용 의사, 특화 주제의 적합성	4
지불의사금액	도서관 서비스(자료, 공간 및 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1

연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 연령, 가족 구성 형태, 가계 월평균 수입 등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두 지역 응답자의 기본 구조 및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 자체가 WTP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Y구와 G구 간 평균 WTP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셋째, 지역 간 이용 행태 및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은 분석 대상 설문 문항 중 도서관 이용 행태(10문항)와 도서관 수요 및 인식(4문항)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명목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서열척도(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연구의 표본 규모가 충분히 크다는 점과 리커트 척도를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근사적 등간척도로 간주하는 점에서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앞선 분석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과 WTP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WTP가 이용

행태 및 인식과 관련된 요인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의 대부분이 서열척도로 측정되었으며, WTP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3. 사례 지역의 현황 및 특성¹⁾

3.1 Y구

3.1.1 기본 현황 및 도서관 건립 예정지 현황

Y구는 전체 면적 12.10km²로 부산 16개 구/군 중 4번째로 작은 구/군이나, 전체 인구수는 212,400명으로 부산 구/군 중 7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Y구는 부산의 행정·사법·공공서비스의 중심지이며, 부산 지역에 운행하는 도시철도 노선 4개 중 3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 잠재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구 밀집도 역시 높아 도서관 1개 관이 수용 가능한 수요 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도서관

1) 분석 대상 지역의 기본 현황은 타당성 분석 시점 기준의 최신 데이터이며, Y구의 경우 2024년 10월 말, G구의 경우 2025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함.

건립 예정지가 위치한 G2동의 경우 Y구 12개 동 중에서 3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동이었는데, 특히 유소년(0~14세) 인구가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었으며, 고령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자 생산연령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Y구에는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2개교, 대학교 3개교로 총 33개의 학교가 있다. 특히, 도서관 건립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내에 총 12개의 학교가 있으며, 이 12개의 학교 중 초등학교가 6개교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중학교가 3개교가 있어 어린이·청소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Y구 내 공공도서관은 3개 관에 불과하며, Y2동, Y5동, Y9동 등 Y동 지역에만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권역별 공공도서관 편차가 큰 편으로, G2동을 포함한 G동 권역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1.2 도서관 현황

기준 시점의 Y구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1관당 장서수, 인구 1인당 장서수, 1관당 사서(정규직)수, 사서(정규직) 1인당 인구수를 부산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1관당 인구수의 경우, 부산 및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도서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용 수요 충족을 위해 도서관 확충이 필요하다. 1관당 장서수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많으나 부산 평균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서 확충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1관당 사서(정규직)수의 경우, 부산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부산 및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Y구는 이상의 지표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서관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도서관 추가 건립 및 지속적인 장서 확충과 적정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Y구 및 도서관 건립 예정지의 세대 및 인구 현황

구분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평균연령(세)
		전체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G2동	8,996	24,645	4,565	16,998	3,082	39.5
Y구 내 순위	5	3	1	3	9	12
Y구 평균	8,277	17,700	1,817	11,848	4,035	47.2

<표 5> Y구 도서관 현황

구분	1관당 인구수	1관당 장서수	인구 1인당 장서수	1관당 사서수	사서 1인당 인구수
Y구	70,137	104,743	1.48	7.0	10,115
부산 내 순위	8	11	11	10	8
부산 평균	68,327	147,675	2.08	7.3	9,957
전국 평균	40,382	97,301	2.41	4.6	8,705

3.2 G구

3.2.1 기본 현황 및 도서관 건립 예정지 현황

G구의 전체면적은 188.2km²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구/군이다. 전체 인구수는 142,869명으로 부산 구/군 중 5번째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중 도서관 건립 예정지가 위치한 M1동의 경우 G구 8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동이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이었다. 유소년(0~14세) 인구나 생산연령 인구가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었으며, 고령 인구는 G구 내에서 2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인구수 대비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상대적으로는 M1동 내 다른 인구 대비 고령 인구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M1동의 경우, 절대적 인구수나 유소년 인구수로 볼 때 수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이다.

G구에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총 39개의

학교가 있다. 이 중 도서관 건립이 예정된 M1동은 G구 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총 8개의 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다. 특히, 도서관 건립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의 총 6개교가 있어 역시 어린이·청소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G구 내에 공공도서관은 3개 관이 있으며, 각각 D2동, M2동, N동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수 및 유소년 인구 비중이나 평균 연령 등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M1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2.2 도서관 현황

기준 시점의 G구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1관당 장서수, 인구 1인당 장서수, 1관당 사서(정규직)수, 사서(정규직) 1인당 인구수를 부산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1관당 인구수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많으나 부산 평균보다는 적은 48,948명으로 부

<표 6> G구 및 도서관 건립 예정지의 세대 및 인구 현황

구분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평균연령(세)
		전체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M1동	21,431	54,346	12,502	36,511	4,587	35.9
G구 내 순위	1	1	1	1	2	8
G구 평균	12,487	32,392	3,238	12,495	2,488	40.0

<표 7> G구 도서관 현황

구분	1관당 인구수	1관당 장서수	인구 1인당 장서수	1관당 사서수	사서 1인당 인구수
G구	48,948	81,535	1.67	3.7	13,349
부산 내 순위	4	16	11	16	14
부산 평균	62,624	139,307	2.22	6.8	9,421
전국 평균	39,519	95,976	2.43	4.7	8,435

산 구/군 중 4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인구 수 대비 도서관수는 덜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지표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1관당 장서수와 1관당 사서(정규직) 수는 부산 지역 내에서 최하위에 그치고 있었으며, 1인당 장서수 역시 지역 인구수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서(정규직) 1인당 인구수 역시 부산 및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G구 역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장서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 간 차이 및 WTP 영향 요인 분석

4.1 응답자 일반사항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전체 응답자는 1,441명이며, Y구가 463명(32.1%), G구가 978

명(67.9%)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59명(38.8%), 여성이 882명(61.2%)이었고, Y구는 비교적 균형적인 성별 분포를 보였으나 G구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7.8%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가족 구성 형태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형태가 전체의 7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두 지역 모두 부모-자녀 형태에 집중되어 있어 가족 구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가계 월평균 수입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52.2%로 가장 높았으나 G구의 경우 Y구 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8〉~〈표 11〉 참조).

4.2 지역 간 WTP의 차이 분석

이어서 이용자들이 응답한 WTP에 지역 간

〈표 8〉 응답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계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Y구	218	47.1	245	52.9	463	100
G구	341	34.9	637	65.1	978	100
계	463	32.1	978	67.9	1,441	100

〈표 9〉 응답자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Y구	8	4.7	152	32.8	182	39.3	91	19.7	30	6.5	463	100
G구	156	16.0	405	41.4	382	39.1	28	2.9	7	0.7	978	100
계	164	11.4	557	38.7	564	39.1	119	8.3	37	2.6	1,441	100

〈표 10〉 응답자 가족구성원의 형태

구분	1인 가구		부부(2인)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조부모-부모-자녀		기타		계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Y구	26	5.6	65	14.0	350	75.6	3	0.6	10	2.2	9	1.9	463	100
G구	173	17.7	57	5.8	736	75.3	2	0.2	8	0.8	2	0.2	978	100
계	199	13.8	122	8.5	1,086	75.4	5	0.3	18	1.2	11	0.8	1,441	100

〈표 11〉 응답자 가계 월평균 수입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		계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Y구	2	0.4	6	1.3	29	6.3	55	11.9	63	13.6	308	66.4	463	100
G구	1	0.1	55	5.6	110	11.2	167	17.1	201	20.6	444	45.4	978	100
계	3	0.2	61	4.2	139	9.6	222	15.4	264	18.3	752	52.2	1,441	100

〈표 12〉 지역에 따른 WTP 값의 차이

구분	평균	SD	t	df	p	Cohen's d
Y구	16,673	37,341	2.593	686,035	.005	.165
G구	11,674	26,269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9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Y구의 평균 WTP는 16,673원이었고, G구의 평균 WTP는 11,674원으로 Y구가 G구보다 약 5천 원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간 평균 WTP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효과 크기(Cohen's d=0.165)가 매우 작은 수준으로, 지역 차이가 WTP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WTP를 결정하는 데에 지역의 차이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B/C 값의 차이가 단순히 평

균 WTP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지역별 수요나 이용 행태, 이용자 인식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행태 및 인식 관련 변수와 WTP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4.3 지역 간 이용 행태 및 인식 변수의 차이 분석

앞서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은 그 자체만으로는 WTP 값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지역 간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 건립 수

요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지역을 독립변수로 하고, 도서관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방문 시 소요 시간, 공공도서관과의 체감 거리, 이용해 본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도서관 충분 정도, 도서관 필요 정도, 도서관 이용 의사, 특화 주제 적합성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수의 경우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3〉 참조).

첫째, 지역 구분에 따른 도서관 이용 빈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35.165$, $df=5$, $p<.001$). 두 지역 모두 월 1~2회 및 주 1~2회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아 자주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유사한 이용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Y구의 경우,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의 80.0%가 Y구 응답자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이용 빈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구분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3.904$, $df=4$, $p<.001$). Y구와 G구 모두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Y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28.5%)이 G구(1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도서관 접근 방식에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 구분에 따른 방문 소요 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49.836$, $df=3$, $p<.001$). Y구의 경우, 30분~1시간 정도 걸린다고 응답한 경우(38.0%)가 G구(25.1%)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G구의 경우, 30분 미만 소요되는 경우(63.7%)에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다. 이 역시

〈표 13〉 주요 변수들의 차이 검정 결과

변수	검정통계량	p	효과 크기	
도서관 이용 빈도	$\chi^2(5) = 135.165$	<.001	V = .306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chi^2(4) = 33.904$	<.001	V = .153	
방문 소요 시간	$\chi^2(3) = 49.836$	<.001	V = .186	
도서관과의 거리	$t(757.905) = 16.001$	<.001	d = .841	
도서관 이용 여부	정보자료	$\chi^2(1) = 5.345$.021	V = .061
	공간 및 시설	$\chi^2(1) = 0.685$.408	V = .022
	행사 및 프로그램	$\chi^2(1) = 20.105$	<.001	V = .118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정보자료	$t(842.797) = -8.435$	<.001	d = .700
	공간 및 시설	$t(1439) = -11.614$	<.001	d = .760
	행사 및 프로그램	$t(1439) = -10.418$	<.001	d = .864
도서관 충분 정도	$t(1039.613) = 20.366$	<.001	d = .930	
도서관 필요 정도	$t(1153.471) = 8.606$	<.001	d = .719	
건립 시 이용 의사	$t(1278.061) = 10.020$	<.001	d = .731	
특화 주제 적합성	$t(671.381) = -6.651$	<.001	d = .870	

지역에 따라 도서관 이용 시 소요되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지역에 따라 응답자가 생각하는 도서관과의 거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6.001$, $df=757.905$, $p<.001$). G구 이용자의 평균(2.24, $SD=.777$)이 Y구 이용자의 평균(3.06, $SD=.96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 또한 큰 수준($d=0.841$)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G구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도서관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에 따라 체감하는 도서관과의 거리가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지역에 따라 도서관 이용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보자료 이용의 경우, 9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chi^2=5.345$, $df=1$, $p=.021$), 효과 크기가 .061로 매우 미미하여 변별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간 및 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0.685$, $df=1$, $p=.408$).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chi^2=20.105$, $df=1$,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보자료나 공간 및 시설 이용보다는 지역 차이를 비교적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자료 이용($t=-8.435$, $df=842.797$, $p<.001$), 공간 및 시설 이용($t=-11.614$, $df=1439$, $p<.001$),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t=-10.418$, $df=1439$, $p<.001$)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료 이용의 경우 Y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공간 및 시설 이용이나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에서는 G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일곱째, 지역에 따라 도서관 충분 정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0.366$, $df=1039.613$, $p<.001$). G구(3.21, $SD=.972$)보다 Y구(4.22, $SD=.837$)가 해당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 또한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d=0.930$).

여덟째, 도서관 필요 정도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606$, $df=1153.471$, $p<.001$). Y구의 평균은 4.76($SD=.591$), G구의 평균은 4.45($SD=.772$)로 나타났으며($d=0.659$), 상대적으로 Y구가 도서관 필요성에 더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각 지역에 도서관이 건립 시 이용 의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10.020$, $df=1278.061$, $p<.001$). Y구 평균은 4.82($SD=.540$), G구 평균은 4.46($SD=.806$)로 나타났으며($d=0.731$), Y구 이용자의 이용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화 대상 및 주제(어린이/영어) 적합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6.651$, $df=671.381$, $p<.001$). G구(4.50, $SD=.742$)가 Y구(4.13, $SD=1.091$)보다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컸으며, 효과 크기도 비교적 큰 수준으로 확인되었다($d=0.870$).

4.4 상관관계 분석

앞선 분석 결과, 지역 자체는 WT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그 효과 크기가

적어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 행태 및 인식 관련 변수와 WTP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WTP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 활용한 독립변수는 대부분 서열척도로 측정되었으며, WTP 또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변수 간 관계 분석에는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ρ)를 사용하였다.

상관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14>와 같다.

WTP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변수들과 WTP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WTP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rho = .081, p < .01$), 도서관과의 거리($\rho = .123, p < .01$), 정보자료 이용($\rho = .178, p < .01$),

공간 및 시설 이용($\rho = .235, p < .01$),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rho = .067, p < .05$), 정보 자료 만족도($\rho = -.052, p < .05$), 행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rho = -.117, p < .01$), 도서관 충분 정도($\rho = .185, p < .01$), 도서관 필요 정도($\rho = .122, p < .01$), 건립 시 이용 의사($\rho = .182, p < .01$), 특화 주제 적합성($\rho = .082, p < .01$)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일수록, 도서관과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수록 WT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WT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 공간 및 시설을 제외하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WTP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건립 시 이용 의사가 높을수록, 특화 주제가 적합하다고 느낄수록 WTP가 높

<표 1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M	SD	
도서관 이용 빈도	1	6	4.08	1.233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	5	2.23	0.993	
방문 소요 시간	1	4	1.60	0.812	
도서관과의 거리	1	5	2.51	0.924	
도서관 이용 여부	정보자료	0	1	0.94	0.242
	공간 및 시설	0	1	0.86	0.345
	행사 및 프로그램	0	1	0.60	0.491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정보자료	1	5	4.32	0.718
	공간 및 시설	1	5	4.24	0.795
	행사 및 프로그램	1	5	3.99	0.896
도서관 충분 정도	1	5	3.53	1.044	
도서관 필요 정도	1	5	4.55	0.734	
건립 시 이용 의사	1	5	4.57	0.750	
특화 주제 적합성	1	5	4.38	0.887	
WTP	0	600,000	13,280.52	30,348.252	

* N=1,441. 일부 변수는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값이 클수록 긍정적 인식을 의미하도록 역코딩 하였음.

〈표 15〉 주요 변수들과 WTP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ρ
도서관 이용 빈도		.045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081**
방문 소요 시간		.024
도서관과의 거리		.123**
도서관 이용 여부	정보자료	.178**
	공간 및 시설	.235**
	행사 및 프로그램	.067*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정보자료	-.052*
	공간 및 시설	-.050
	행사 및 프로그램	-.117**
도서관 충분 정도		.185**
도서관 필요 정도		.122**
건립 시 이용 의사		.182**
특화 주제 적합성		.082**

** $p < .01$, * $p < .05$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과 정보 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95% 유의수준에서 WTP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는 99% 유의수준에서 WTP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와 WTP 간의 상관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간 변수들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P는 특정 변수들에 의해 강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단일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응답자들의 복합적인 판단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지표인 비용편익 비율(B/C)의 편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지불의사금액(WTP)을 측정하기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최근 부산 지역에서 수행된 두 건의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사례로, 두 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어린이)과 특화 주제(영어)가 동일하였으며, 대상 지역 두 곳 모두 도서관 인프라 취약 지역이라는 점과 낮은 평균 연령 및 높은 청소년 인구 수 등 인구 구조 측면에서 어린이·청소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두 지역의 B/C 값은 Y구가 1.60, G구가 1.04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 평균 WT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효과 크기($d=.165$)가 미미하여 지역 자체만으로는 WTP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경제성 지표 결과값의 차이가 지역 자체에서만 기인하기 보다는 이용자 측면의 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실제로 Y구와 G구는 이용자 이용 행태 및 인식 관련 변수에서 다수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방문 소요 시간, 도서관과의 거리,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등 이용 행태나 접근 방식에서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도서관 충분 정도, 도서관 필요성, 건립 시 이용 의사, 특화 주제 적합성 등 도서관 수요 및 인식 측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서관과의 거리나 도서관 충분 정도, 도서관 필요성, 건립 시 이용 의사 등 수요 및 인식과 관련된 변수에서 그 효과 크기가 상당히 크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경험과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가 지역 맥락 측면에서 구조적 차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주요 변수와 WTP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도서관과의 거리,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부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건립 시 이용 의사, 특화 주제 적합성이 WTP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지역의 맥락이 WTP 형성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WTP가 특정 단일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들 지역 맥락이 복합적으로

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지표가 이용자의 이용 행태 및 접근성이나 도서관 이용 경험과 인식 정도 등 맥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타당성 평가 수행 시 WTP 산정 과정에 이러한 지역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지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형평성 및 접근성 등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WTP를 중심으로 이용자 측면의 요인에 분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실제 B/C 값의 산정에는 수요 추정 방식, 편익 추정을 위한 항목 구성, 비용 산정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정 체계 전반을 포함한 비교 분석을 통해 경제성 지표의 차이 발생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2개에 그친다는 점과 이들이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사업이라는 한계도 있다. 반면, 조사의 표본 규모 및 응답자 구성이 상이하며, 조사 시점 역시 서로 달라 결과 해석에 제약도 따른다. 이러한 표본 구조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차이는 응답자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를 통제하거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도

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 온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사한 조건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에서 경제적 타당성 지표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을 지역 맥락 차원에서 실

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지역 맥락 기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2020).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부산시 사상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79-104.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79>
- 강희경, 이용재 (2017).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금샘도서관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99-119. <http://dx.doi.org/10.16981/kliss.48.2.201706.99>
- 강희경, 장덕현, 이수상 (2014a).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489-511. <http://dx.doi.org/10.16981/kliss.45.3.201409.489>
- 강희경, 장덕현, 이수상 (2014b).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09-428. <http://dx.doi.org/10.16981/kliss.45.4.201412.409>
- 노영희, 광승진, 장인호, 심효정 (2023). 청주시 만화·웹툰 특화도서관 신규 조성 타당성 및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55-83.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55>
-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11-1371000-1000014-14).
- 박주현, 장우권, 신우진, 김주진, 박현지 (2024).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완도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55-81. <http://dx.doi.org/10.16981/kliss.55.2.202406.55>
- 심원식 (2010).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의 이론적, 실제적 검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31-247.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4.231>
- 오용식, 황진용, 이용재 (2016).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175-200. <http://dx.doi.org/10.16981/kliss.47.2.201606.175>
- 윤대식, 오동근, 구경남, 김상황 (2003).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313-330.

- 이상복 (2004).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491-516.
- 장덕현, 구본진 (2018).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C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25-142.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125>
- 표순희 (2012).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가치의 비교 연구: 지불수단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9(2), 173-191.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2.17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 Hyun & Koo, Bonjin (2018).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a children's library construction: The case of C Innovati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25-142.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125>
- Kang, Eunyeong (2020). A study on user's perception survey for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ies: Focused on Sasangu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79-104.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79>
- Kang, Hee Kyung & Lee, Yong Jae (2017). A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public library construction: Focused on the case of geumsaem library constru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99-119.
<http://dx.doi.org/10.16981/kliss.48.2.201706.99>
- Kang, Hee Kyung, Chang, Durk Hyun, & Lee, Soosang (2014a). A basic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Busan Central Library constru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489-511. <http://dx.doi.org/10.16981/kliss.45.3.201409.489>
- Kang, Hee Kyung, Chang, Durk Hyun, & Lee, Soosang (2014b).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busan central library construction: For the four candidate sit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09-428.
<http://dx.doi.org/10.16981/kliss.45.4.201412.409>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21). Research on General Guidelines for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for Local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Wonju: KRILA.

- Lee, Sang Bok (2004). A study of feasibility study on construction a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491-516.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y*. Sejong, MCST (11-1371000-1000014-14).
- Noh, Younghee, Kwak, Seung-Jin, Chang, Inho, & Sim, Hyo Jung (2023). A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operational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specialized library for Comics and Webtoons in Cheongju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4), 55-83.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55>
- Oh, Yong-Sik, Hwang, Jin-Yong, & Lee, Yong Jae (2016). A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constructing the Maritime and Ocean Digita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175-200. <http://dx.doi.org/10.16981/kliss.47.2.201606.175>
- Park, Juhyeon, Chang, Woo kwon, Shin, Woo-Jin, Kim, Ju Jin, & Park, Hyunji (2024). A feasibility study on the relocation of public library to multicultural library: Focusing on Wando-Coun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55-81. <http://dx.doi.org/10.16981/kliss.55.2.202406.55>
- Pyo, Soonhee (2012). The Comparative Study of Public Library Valuation Using CVM: Case of the Payment Veh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2), 173-191.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2.173>
- Shim, Wonsik (2010). Rethink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economic 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31-247.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4.231>
- Yun, Dae-Sic, Oh, Dong-Geun, Koo, Kyeongnam, & Kim, SangHwang (2003).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constructing a new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313-330.

